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강북신문

강북구의회 정례회 23일 열려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해 구정업무 개선을 도모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현장방문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할 예정이다.

동북일보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

강북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가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3일간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전연설 및 제안설명,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룬 후 다음날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 활동을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강북구청 기획상황실과 대강당, 두 군데로 나눠 집행부 각국·과별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게 된다.

12월 1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조례를 심사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수

조정을 한다.

12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예정이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소독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0년도 복지건강위원회 소관 행정



▲강북구의원들이 지난 17일 저녁에, 3선 도봉구의원 출신의 김용석 서울시의원을 초청,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해 강의를 듣고 있다.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상수 기자 sungshuh@hamill.net) 통과시킨 후 산회한다.

강북신문



김용석 서울의원이 강북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결산 심의요령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늦은 밤까지 의원들은 계속 열공중’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위해 교육 실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11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강북구의회 내 마련된 교육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 감사·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는 김용석 서울특별시 시의원(민주당 도봉)이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결산 심의요

령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북부신문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열공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대비해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강북구의회 내 마련된 교육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 감사·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는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결산 심의요령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1월 17일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강북구의회 내 마련된 교육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 감사·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는 김용석 서울특별시 시의원이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결산 심의요령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강북구 의회,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의장 인수초 전소정, 구청장 영훈초 정우진 어린이 등 28명 참가



미양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8명이 참가한 강북구의회 모의의회에서 의장을 맡은 인수초 전소정 어린이가 의장석에 있고 유군성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6일 15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미양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8

명이 참가하여 2010년도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진행하였다.

미양, 반동, 삼각산, 삼양, 송중, 송현, 수유, 영훈, 오현, 유현, 인수초 어린이들이 참가한 이번 모의의회는 성북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본 행사에 앞서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오늘 모의의회 체험이 학생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성북교육지원청 홍순길 교육장은 "교실 밖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간직해줄길 바라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모의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수준 높은 회의문화의 함양 및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회의와 똑같이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구청장문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생동감있는 현장감과 사실감을 더해 의정활동을 간접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강북구의회는 어린이들이 민주적인 토론문화와 의사 결정 과정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매년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0년도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강북구의회, 16일 2시간동안 초등생 28명 참여해 진행



강북구의회에서는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미양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8명이 참가하여 '2010년도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 앞서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오늘 모의의회 체험이 학생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성북교육지원청 홍순길 교육장은 "교실 밖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간직해줄길 바라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모의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수준 높은 회의문화의 함양 및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상인들 점포 문닫고 거리로 나섰다

16일 삼양동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강북중소상인대회 개최
상인들 점포 문 닫고 집결해 호소문 낭독, 퍼포먼스 등 행사 가져



SSM 입점을 막기 위해 강북구 지역 상인들이 15일 오전 삼양시장 오거리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에서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강북중소상인대회를 개최했다. 수유마을시장상인회(수유시장상인회), 삼양시장상인회(삼양시장상인회), 수유마을시장상인회(수유시장상인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삼양동 주막가 일대의 상인들은 롯데마트의 입점을 막고 지역상권보호와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다. 이날 대회는 수유마을시장과 삼양시장 주막가 일대 상인들 300여명의 지역 상인들이 열렬한 호응을 얻고 참여했다. 호소문 낭독, 자유발언, 입점저지 퍼포먼스 등 약 2시간이었던 진행하며, 행사 시간 동안 시장을 폐쇄할 상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삼양동 777번지 일대에 입점할 예정으로 현재 준공 87%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원래 삼양시장 재건축에 편입된 규모로 8188㎡에 이른다. 주변 시장 상인들은 지난 10월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법에 사업조항상권을 했지만 롯데마트는 계약해결이 안되어 입점 미확정 상태라는 이유로 자립마을 협상을 마치고 있으며 대대설치, 구인광고 등 입점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인들은 눈 뜨고 기다리고 있다.

삼양시장 롯데마트 입점 결사반대

16일 롯데마트 입점에정지서 입점 저지 위한 강북중소상인대회 개최



지난 16일 강북구 수유마을시장상인회와 삼양시장상인연합회가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에서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강북중소상인대회를 개최했다. 상인들 점포 문 닫고 거리로 나섰다. 강북구 수유마을시장상인회와 삼양시장상인연합회는 16일 오전 11시30분 삼양시장 오거리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삼양동 777번지)에서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강북중소상인대회를 개최했다. 수유마을시장상인회(수유시장상인회), 삼양시장상인회(삼양시장상인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삼양동 주막가 일대의 상인들은 롯데마트의 입점을 막고 지역상권보호와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다. 이날 대회는 수유마을시장과 삼양시장 주막가 일대 상인들 300여명의 지역 상인들이 열렬한 호응을 얻고 참여했다. 호소문 낭독, 자유발언, 입점저지 퍼포먼스 등 약 2시간이었던 진행하며, 행사 시간 동안 시장을 폐쇄할 상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삼양동 777번지 일대에 입점할 예정으로 현재 준공 87%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원래 삼양시장 재건축에 편입된 규모로 8188㎡에 이른다. 주변 시장 상인들은 지난 10월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법에 사업조항상권을 했지만 롯데마트는 계약해결이 안되어 입점 미확정 상태라는 이유로 자립마을 협상을 마치고 있으며 대대설치, 구인광고 등 입점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인들은 눈 뜨고 기다리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삼양시장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가 입점, 재래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주변 시장 상인들은 지난 10월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법에 사업조항상권을 했지만 롯데마트는 계약해결이 안되어 입점 미확정 상태라는 이유로 자립마을 협상을 마치고 있으며 대대설치, 구인광고 등 입점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인들은 눈 뜨고 기다리고 있다. 또한 유통법과 상정법이 불공평하다고 어긋난 법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삼양시장은 규모가 작아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수유시장은 700여미터가 떨어져 있어, 500m 이내인 전통시장보호규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현재 삼양시장 주변엔 50여 점포들이 모여있으며, 수유마을시장은 서울의 대표인 재래시장으로 500여개 점포가 입주해 상업 중이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주변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몰락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수유마을시장 상인들은 '유통법'까지 제정하는 데가 입점 때를 막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곳은 원래 삼양시장 재건축에 편입된 규모로 8188㎡에 이른다. 주변 시장 상인들은 지난 10월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법에 사업조항상권을 했지만 롯데마트는 계약해결이 안되어 입점 미확정 상태라는 이유로 자립마을 협상을 마치고 있으며 대대설치, 구인광고 등 입점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인들은 눈 뜨고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뉴스(이투데이)

관련통계

- 롯데마트 연월별 구매 매출비중
- 2010년 3분기 지역별 면적 보유

도시별 생활주력 인-허가 현황('10.)

이태원, 공촌과 생촌 사이

상업

삼양시장 롯데마트 감사돌입

2010-11-22 11:34:38

눈속임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양시장 롯데마트'에 대해 정치권의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강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돌입하는 서울 강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삼양시장 롯데마트'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에서 의원들은 2009년 1월 이전 '미아동 삼양시장 재건축특수사업'의 승인과 이후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사업계획서 변경 등 이번 사태의 전 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해당 사업을 승인해준 구청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전부터 시장대표와 롯데마트측의 입점 계약이 확정됐는지의 여부가 이번 감사의 최대 쟁점이다.

삼양시장은 2008년 12월 1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재건축)추진계획 승인이 추천됐다. 당시 계획에서도 재건축 건물은 현재 롯데마트 용도 규모와 똑 같은 지상5층, 지하2층의 규모로 판매시설 면적은 8188.7㎡다.

재건축을 앞두고서는 2009년 6월부터 삼양시장(주)는 향후 재건축 건물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인들에게 3개월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철수를 요청했고, 상인들은 임시로 이곳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14회 강북미술협회전 개최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지역주민의 미적 소통에 의미

지난 15일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강북미술협회 정기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제14회 강북미술협회(회장 이관성) 정기전이 15일부터 20일까지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실에서 펼쳐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북미술협회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이관성 회장은 "이번 정기회원전은 G20 정상회담에 따른 내외적 국악성 장에 관한 회화와 함께 매우 뜻 깊은 전시"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지역주민의 미적 소통을 이루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고 말하고 회원들의 맑고 열정을 담아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으며 이번 전시회가 풍요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회화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수 강북구청장 정양석 국회의원, 유권성 강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회원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강북미술전을 축하했다.

제14회 강북미술협회전 15일 개막

20일까지 협회 작가들 다양한 장르 선보여

강북미술협회의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제14회 강북미술협회(회장 이관성) 정기전이 15일부터 20일까지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실에서 펼쳐졌다.

강북미술협회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 이관성 회장은 "이번 정기회원전은 G20 정상회담에 따른 내외적 국악성 장에 관한 회화와 함께 매우 뜻 깊은 전시"라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지역주민의 미적 소통을 이루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시회에서는 박정수 강북구청장 정양석 국회의원, 유권성 강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회원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강북미술전을 축하했다.